

말기신부전 환자 보호자의 정신건강과 관련인자에 관한 관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정신과학교실[§], 제주한마음병원 신장내과*,
부천 대성병원 신장내과[†], 제주시 정신건강센터[‡],
강우현 · 이형석* · 여호명[†] · 고해정[‡] · 광영숙[§]

서론 : 평균수명의 증가와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의 증가로 인해 고령의 말기 만성신부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의 신부전 환자의 경우 거동이 어렵고 여러 다른 질환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역할이 증가하게 된다. 보호자의 사회적, 정신적인 부담은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환자의 질병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령의 말기신부전 환자의 보호자의 정신적인 문제는 매우 클 것으로 추측된다. 국내에는 만성신부전의 보호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 보고가 없는 상태이며 외국에 비해 가족간의 심리적 유대가 큰 특성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 환자 보호자의 정신 건강상태가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만성신부전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이들의 보호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마음병원, 제주한국병원 인공신장실에서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환자의 임상자료와 그 보호자의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였다. 평가는 우울, 스트레스 평가하는 선별 도구인 자기보고형 설문지와 간이 정신진단검사를 이용하였고 우울증은 16점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각 척도와 환자, 보호자의 임상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환자의 동반이환은 cumulative illness rating scale (CIRS), Charlson score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환자는 총 20명 (남 12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7±13세였다. 투석을 시작한지 3개월 미만인 1명을 제외한 환자의 투석기간은 25개월 (중앙값, 4-78개월)이었다. 원인 질환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각각 30%, 25%를 차지하였다. 보호자의 평균연령은 54±12세였고 대부분이 배우자였다 (14명, 여 9명). 환자에 비해 보호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5.5 vs 19.4, p<0.05) 보호자에 비해 환자의 우울점수가 높았다 (19.9 vs 13.5, p<0.05). 우울증은 환자와 보호자에서 각각 60%, 45%이었다. 정신진단검사는 임상적 유의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고 7개 하위척도는 환자 보호자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대인감수와 편집증에서 보호자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의 스트레스는 여자, 환자의 비배우자, 독신, 유직, 동반질환이 있을수록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보호자의 우울 점수는 여자, 환자의 배우자, 독신, 무직, 동반질환이 있을수록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역시 없었다. 환자의 우울 점수는 동반이환점수가 높을수록 높았다 (상관계수 CIRS: 0.52, Charlson: 0.61 p<0.05)

결론 : 말기신부전 환자 보호자의 스트레스 지수는 환자보다 높았으며 우울증도 다수에서 발견되어 정신건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관련된 인자는 밝힐 수 없었으므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